

“슬퍼할 시간 없다”...조직 수습·이미지 회복 ‘속도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공식 업무 개시 첫 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공식 업무 개시 첫날부터 ‘속도전’에 나서며 당의 위기 국면 수습에 나섰다. 총선 홍보비 파동 국면에서 안으로는 흔들리는 조직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옛날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세 안다’고 한다”며 안철수·전정배 두 공동대표의 사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바쁜 끝없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 당의 결집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의사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원 초기에 보여준 우리 당의 선도정당, 제3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방침처럼 이날 의총에서는 당 수습 및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즉시 마련돼 실행에 들어갔다.

매주 화요일 의총 정례화

7~8월 전국 순회 투어

“전대 앞당기자” 목소리도

우선 조속한 비대위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당의 골격인 지방·지역 조직 구성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당헌·당규 정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대위 체제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자 매주 화요일 의총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번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오는 7~8월 당의 주요 의원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 방문하기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아권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각각 3번이나 한 ‘진기록’을 가진 만큼 안팎에서 거는 관망과 경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사태 수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태세다.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 당을 이끄는 데 그만큼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오래 지속하기 보다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올해 연말로 앞당기면서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내년 5월 정도에 대선 경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의당은 올 12월에 대표를 선출하고 선제적으로 내년 2월에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 흥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김메이커’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가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 등을 영입, 판을 키워갈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12년째 법사위원하고 정치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며 사실상 다음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워크숍 개근상 받는 안철수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워크숍 개근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민·박선숙 의원 자진탈당 거부한채 두문불출...당 속수무책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들은 지난 30일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들은 탈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는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의정활동도 중단한 채 배제된 채 두 의원들의 행보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서 두 의원의 자진 탈당하

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출당 내지 제명을 시키더라도 두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는 원론적 결과만 도출한 것에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 탈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과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외면하

고 있는 두 의원의 행보는 책임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는 점에서 당의 위기 국면에서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검찰 기소 전에 명확한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제명·당원자격 정지 유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당 소속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

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징계 준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체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깊지 못

했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들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저를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당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백의종군 첫날 당 워크숍·상임위 참석

“평의원으로 당 위해 열심히 할 것”...대표 사퇴 하루만에 정책 모드 전환

국민의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30일 당 워크숍과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며 평의원으로서 첫날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당분간 당 공식 행사 참석 및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관측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의 이날 첫 공식 일정은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 워크숍이었다. 총선 이후 22차례 열린 정책 워크숍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일인 지난 22일 연설문 준비로 한 차례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개근했다.

이달 초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이 불거진 뒤 한 달 가까이 출근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던 안 대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탓인지 활기찬 모습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한 차례 불참을 공무로 인정받아 ‘정책워크숍 개근상’을 받고는 환하게 웃기도 했다. 상장을 수여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반갑게 악수를 했다. 안 대표가 상장을 받을 때 동료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를 보냈다.

안 대표는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치일정을 묻는 질문에 “평의원으로 당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안 대표가 정책 공부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온 만큼, 정책워크숍과 상임위에 참석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평의원으로

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분간 국회에선 상임위 활동에 주력하고, 예정된 강연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향후 대권행보 구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계획보다 일찍 대표직에서 물러난 만큼, 대권행보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에서 패란을 일으킨 신생정당의 수장으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사라졌지만, 대표직에 얽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활동폭을 넓힐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장애,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